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곳도 어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연휴입니다.

저희 번역팀은 토요일부터 휴무를 하고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5일 번역 원고 팀점검하는 일과가 지겹게 느껴질 때도 많지만

이 마저 없었으면 격리 기간이 더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는 목요일 밤이면 호텔 격리가 해제되고 1주간의 자가 격리만 남게 됩니다.

지난 9일 도착해서 검역, 입국, 통관 모두 순조롭게 마치고

그래도 두번째라고 벌써 적응이 되었는지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ㄱㄷ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린 씨라 부부 역시 팀의 배움을 받으며 따오현에 귀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파송 ㄱㅎ에서 온라인 파송예배를 드려주고

따오현 센터 후원자께서도 참석해서 격려사를 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배움을 온 팀이 힘을 모아 떼현 센터 이사까지 마친 것입니다.

덕분에 린 씨라 부부 사택 방 한칸이 짐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방 구입 건이 생각처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리 정해 준 매물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고

다른 매물들은 아니나 다를까 순형제가 구입을 꺼려했습니다.

린 씨라 가정에게도 방 한칸을 차지하고 있는 떼현 센터 짐을 비워져야 좋고

11월 만기가 되는 RS 사무실 집기 역시 따오현센터로 옮겨야 하는데

사역방이 빨리 구입될 수 있도록 ㄱㄷ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생님 취업허가를 위해 ㄱㄷ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반년째 많은 경비까지 지출했는데도 진전이 없어 걱정입니다.

커피코너 집기가 RS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어

만기전 귀임해서 새로운 사업장을 열지 않으면

팀 전체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을 운영했던 박선생님 가정도 한계에 부딪혀

사업을 정리하고 ㄱㄷ 중이라고 합니다.

현지 상황이 더욱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 단체 현지법인 대표도 제 이번 일정을 11월초까지만 허락하고

당분간은 더 이상의 현지 일정을 잡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현지인들이 스스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지의 전반적인 상황을 위해 ㄱㄷ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ㄱㄷ합니다.

문바나바 올림